

강릉시



# 강원도 청정 자연수(水)를 시민의 품으로

강원도 강릉시 경영사업본부

수시로 기온과 표정을 달리하며 한겨울도 내디딜 수 없는 인재를 뿌려대는 대관령 고갯길을 넘으면 푸른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두대간의 정기와 푸른 바다의 넉넉함을 지닌 강릉이 있다. 청량한 도시의 이미지처럼 강릉시의 수돗물은 역시 맑고 깨끗하다. 물 좋고 사람 좋고 경치 좋은 강릉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늘 고민하는 든든한 일꾼들을 만나보았다.

## 강릉시, 앞선 경영 마인드로 다시 태어나다

서울에서 세 시간 남짓, 강릉은 강원도 백두대간의 동쪽인 영동지역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평창군, 정선군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해시, 북쪽으로는 양양군과 인접해 있다. 강릉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강릉객사문(江陵客舍門, 국보 제51호), 해운정(海雲亭, 보물 제183호), 허난설헌목판초간본(許蘭雪軒木板初刊本, 지방유형문화재 제124호) 등 우수한 문화 사적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릉은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고도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예향 도시이다.

“강릉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신하여 경영사업본부에 수도과, 하수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 본부는 이외에도 경영지원과와 공영개발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철저한 경영 마인드로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자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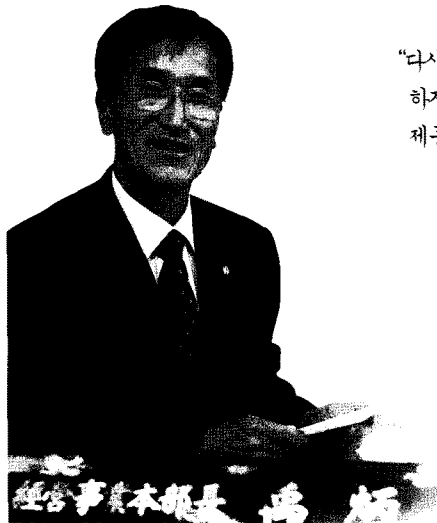
경영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우병기 본부장은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라는 마음으로 남들과 다르게 접근을 시도한 강릉시 경영사업본부의 조직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지속되면 그것이 곧 관광도시인 강릉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공사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사전에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해서 중복 굴착을 최대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는 이후에 환경과 쓰레기 문제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유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강릉시의 이러한 노력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행정 전반에 걸쳐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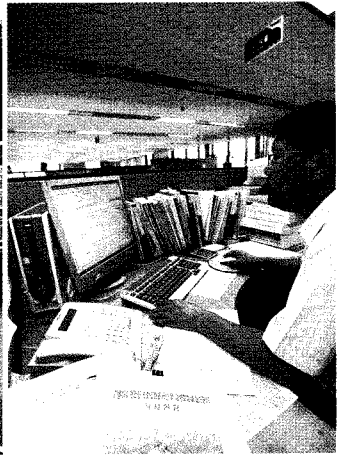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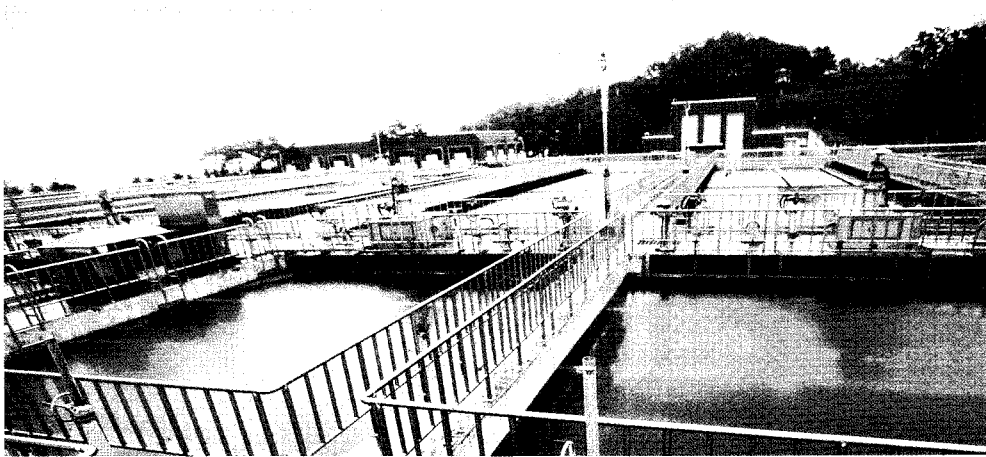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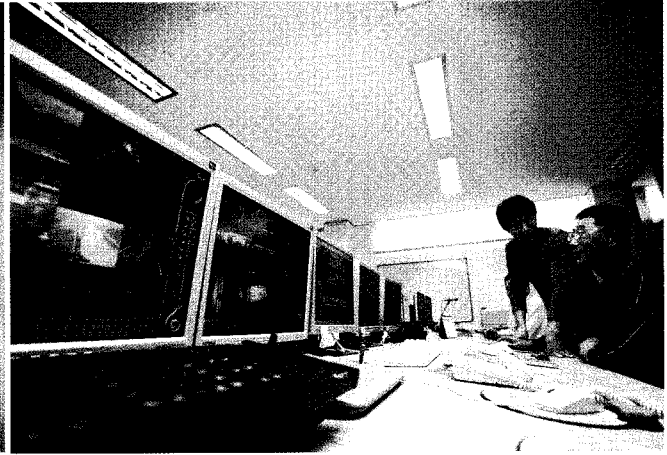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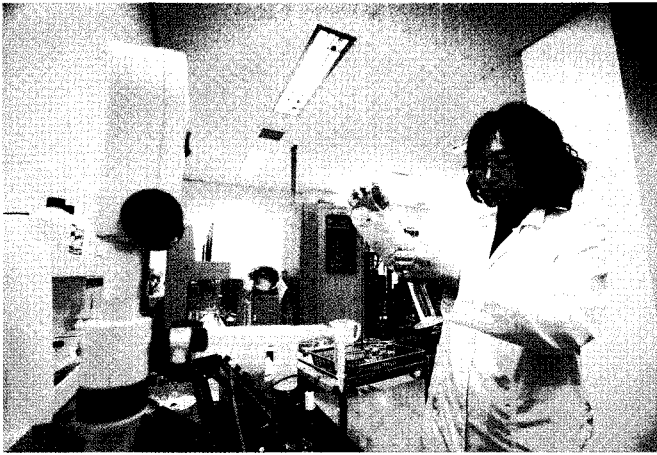
## 주민에게는 생활 편의를 방문객에게는 관광 편의를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점은 노후관 관리입니다. 해안에 인접한 지역의 특성상 부식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곧 부식방지감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을 만들기 위해 작은 민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과 관광객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 경영사업본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병기 본부장  
강릉시 경영사업본부



조영하 수도과장은 향후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후관 교체와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강릉시는 이에 맞춰 총 1,040km의 관할지역내 상수도 관로 가운데 24년 이상 된 266km에 이르는 노후관을 500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전격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거를 비롯한 수돗물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1년에 1,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은 수도행정을 선보여야 시민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강릉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병기 본부장은 이를 위해 지난 7, 8월 두 달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피서철 상수원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토·일요일, 공휴일에 단속반

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적인 어로, 세차, 취사, 야영, 수영 등을 감시했다. 맑은 물을 지키고 관광 도시로서의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관광도시라는 특성은 각종 수도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성수기인 7~8월에는 관보수 공사를 전격 유보하고 시행함으로써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철원군)과 장려상(횡성군)을 동시에 수상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수돗물이 3년 연속 최고의 먹는 물로 선정된 것은 평가 첫해 강릉시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던 전통이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모든 수도행정이 시민과 강원도를 사랑해주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병기 본부장의 말이 2008년 한해 강릉시 고객을 섬기는 수도행정으로 증명된 셈이다.

“강릉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백산맥

에서 기원하는 원수(原水) 또한 감히 1등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를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해 가는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죠.”

### 적극적인 수도행정으로 한 걸음 앞서가

국내 최고의 원수를 자랑하는 강릉시는 좋은 물을 사용하고 난 후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지난 해 강릉시가 2007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국 1,07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강릉시가 운영 관리의 전문성에서 만점으로 완벽성을 인정받았고, 유지 관리와 처리시설 운영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수과 송영태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주문진하수처리장의 경우 대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분야 평가에서 2006년 2위에 이어 작년 3위에 선정되는 등 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가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증명했다며 하수 관리에도 최고임을 자부했다.

또한 하수처리장 시설을 단순히 시설로서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시설로 인식하여 올해 들어 하수처리장 외곽과 나무에 네온 등을 설치하고 밤바다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야경을 탄생시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강릉시는 현재 정동진과 옥계에 하수처리장을 새로이 건설 중이다. 먼 지역의 위생적인 오수·하수 처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함께, 나아가 하천 및 연안 해역의 수질을 보전해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높일 생각이다.

“강릉시는 올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사용자들이 사용료 고지나 사전 단수 상황에 대해 보다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 한상돈 과장은 또한 강릉시에서 시행 중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가 징수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진 수도행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강릉시의 마스크트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홍길동이다.

사회적 폐쇄성과 부패에 대항하는 정의로움, 용맹함을 갖춘 홍길동을 강릉시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다가가는 민중의 영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청년으로 묘사했다.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분주하게 뛰고 있는 강릉시 경영사업본부의 모든 이들이야말로 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바로 청년 홍길동이 아닐까 싶다. ☺

## mini interview

더 나은 수도행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채무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돈 과장**  
경영지원과



해안지대인 강릉시가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노후관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부식방지감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하 과장**  
수도과



하수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지역별로 담당 직원을 배정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지 않겠습니다.

**송영태 과장**  
하수과

